

# “여객기 엔진서 불꽃 치솟더니 속도 못 줄이고 광”

## 지역 주민들이 전하는 사고 순간

공중에 떠 운항 중에 ‘핑, 핑’ 소리 첫 착륙 실패한 후 회항해 재착륙 “주변 민가 스치는 줄 알고 조마조마”

“여객기 날개 오른쪽 엔진에서 불길이 펄펄 치솟더니 속도 줄이지 못하고 빠르게 활주로를 달리다 담을 들이받았어요.”

29일 오전 9시3분께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과정에서 충돌, 폭발하는 사고를 목격한 주민들은 “여객기에서 굉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더니 결국 사고가 났다”고 입을 모았다.

29일 무안군 망운면 툼머리마을 한 음식점 사장 60대 남성 A씨는 20대인 아들과 자동차 엔진오일을 점검하러 마당에 나왔다가 사고를 목격했다.

A씨는 “자동차를 살피는데 집 뒤원에서 ‘핑, 핑’ 소리가 나더라”며 “누가 해변에서 폭죽을 터트리는 줄 알고 뒤를 돌아봤더니 공중에 떠 있는 여객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객기가 활주로를 따라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 구조물 등에 충돌해 기체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무안소방서 제공

도를 낮춰 쪽 내려가더니 착륙을 하지 못하고 다시 이륙할래 무안공항에 못내리고 광주공항에서 비상착륙을 하는 줄

알았다”고 회상했다.

비행기가 다시 이륙하는 과정을 본 A씨 부자는 곧장 식당 옥상에 올라가 상

을 살폈다. 광주로 갈 줄 알았던 여객기는 다시 8자로 회항해 착륙을 시도했다고 한다.

정성아 기자·뉴시스

##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2년 전에도 조류 충돌 사고

### 2022년 엔진고장으로 회항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 랜딩기어 불발로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가 2년 전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사고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여객기인 제주항공 JJA2216(71C088, HL8088)편 비행기는 미국 보잉사의 B737-800 기종으로, 제주항공이 지난 2017년부터 임차해 운용 중이다.

해당 여객기는 지난 2022년 11월 20일 일본 간사이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했으나, 이륙 직후 조류 충돌로 의심되는 엔진 고장으로 회항했다.

당시 제주항공이 엔진 고장을 조류 충돌로 은폐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제주항공이 비용 절감을 위해 엔진 수리를 반복해 엔진 고장이 났으나, 운수권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조류 충돌로 축소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사고 원인 조사 중이며, 은폐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국토교통부와 제주항공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의 원인은 ‘조류 충돌 의심’으로 결론 났다.

사고기는 또 이번 사고 발생 이틀 전인 지난 27일 인천에서 중국 베이징을 향하다, 기내 환차 발생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한 바 있다.

한편 제주항공은 현재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39대의 B737-800을 운

용 중이다. 이어 티웨이항공 25대, 진에어 19대, 이스타항공 6대, 대한항공 2대 등이 운용되고 있다.

이번 무안 사고 여객기의 비행기 연수는 15년으로, 소방당국에 따르면 조류 충돌 이후 랜딩기어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탑승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총 181명으로 이날 오후 1시 현재 80여명이 사망하고, 99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명은 구조돼 치료 중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05년 제주항공 설립 이후 첫 인명사고다. 제주항공은 이번 사고 관련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했으며, 탑승자 가족 문의센터를 운영 중이다.

뉴시스

## 사고기 생존자 2명은 제주항공 승무원

### 기체 꼬리 쪽 있다가 극적 구조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추락한 가운데 현재까지 극적으로 구조된 생존자는 2명으로 이들은 제주항공 남부승무원으로 파악됐다.

2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여객기 추락 사고로 인해 구조된 2명은 모두 승무원이다. 당초 생존 구조자가 탑승객 1명, 승무원 1명으로 알려졌지만 현장 구조반에 따르면 2명은 제주항공 소속 남부 승무원으로 확인됐다.

두 승무원은 사고 기체 꼬리쪽에서 발견됐는데, 항공기 맨 뒤에 있는 ‘갤리’라 불리는 서비스를 위한 공간에 있다가 생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구조된 두 사람은 항공기 꼬리 쪽에 타고 있었으며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다. 충돌 과정에서 여객기 동체가 찢어지며 꼬리 부분이 떨어져 나가 극적

으로 목숨을 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승무원 중 한 명인 20대 남성 A씨는 여객기 사고 이후 목포한국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서울 지역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착륙을 앞두고 안전 벨트를 매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승무원인 20대 여성 B씨는 목포중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분께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추락하면서 울타리 외벽과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여객기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 175명 중 한국인은 173명, 나머지 2명은 태국인으로 파악됐다.

정성아 기자

## 국내 1위 LCC 제주항공, 첫 인명 사고가 대형 참사

### 항공기 42대 60여개 노선 지난해 탑승객 1230만명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선두주자로 평가받는 제주항공에서 발생한 첫 인명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총 181명이 탑승한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7C 2216편 여객기가 동체 착륙 도중 활주로와 맞닿은 공항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항공이 인명 사고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지만 승객이 목숨을 잃은 적은 없었다. 첫 인명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제주항공은 애경그룹과 제주특별자치도 합작으로 지난 2005년 설립됐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양대 대형항공사(FSC) 체제에서 합리적인 여행 가격 요구와 항공 교통 여건 개선, 관광객 편의도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가 발생한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제주항공 서울지사서 직원들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뉴시스

2006년 6월 김포-제주 노선을 취항했고, 2009년 3월에는 인천-오사카(일본) 국제 정기노선을 취항했다. 국내 LCC 업계에선 최초의 국제선 취항이다.

2015년에는 LCC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고, 2017년 LCC 최초 연간 탑승객 1000만명 돌파, 2018년 누적 탑승객 5000만명 돌파의 역사를 써왔다. 지난해 탑승객 수는 1230만명이다.

또 올해 1분기 기준으로 LCC 중 가장

많은 42개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40여개 도시에 60여개 노선을 취항했다. 30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서울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제주공항을 주요 거점으로 운항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애경그룹의 자회사로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50.37%로 절반 이상을 보유한 1대 주주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은 매출액 1조4273억원, 영업이익 1051억원이다.

뉴시스

## “무안공항 활주로 내년 1월1일까지 폐쇄”

### 국토부 “블랙박스 회수”

국토교통부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내년 1월1일까지 사고 활주로를 폐쇄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1일 오전 5시까지 무안공항 활주로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공사고조사관 8명, 항공안전감독관 9명 등이 사고현장에서 초동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 원인을 규명할 블랙박스의 경우 음성기록장치는 오전 11시30분께, 비행기록장치는 오후 2시24분께 수거했다.

현재 현장 사고 수습에 소방 490명, 경찰 455명, 군 340명, 해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 1572명이 투입된 상태다.

앞서 이날 오전 9시3분께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 공항 내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화재로 사고 항공기는 전소됐다.

사고 여객기에서는 탑승객 175명(태국인 2명 포함)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전 여객기는 착륙을 두 차례 시도했으나 랜딩기어가 제때 펼쳐지지 않았으며, ‘핑’, ‘핑’ 소리가 난 뒤 활주로를 벗어나 불시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장에는 부산지방항공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 사고수습본부가 설치돼 유가족 지원 상담실 운영, 피해자와 가족명단 매칭, 유가족 대표 사고현장 방문 등 유가족 지원을 하고 있다.

김선욱 기자